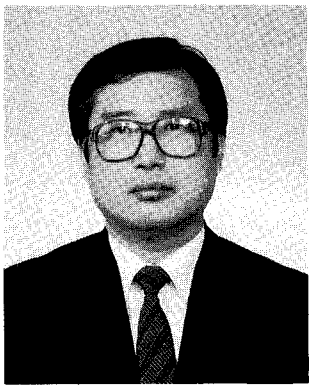
世界에너지會議 東京總會를 다녀와서



한국에너지협의회
사 무 국 장 張基憲

WEC 제16차 총회가 지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동경인근 지바시 일본컨벤션센타(Makuhari Messe)에서 개최되었다.

동경총회는 2차대전 종전과 UN창설 5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 반세기동안 일본이 이룩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선진화된 에너지산업 구조를 타회원국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6년전 캐나다 몬트리올 총회에서 일본이 총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동경총회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WEC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WEC의 조직 및 운영

World Energy Council은 전세계의 101개국이 참가하는 여러 분야의 에너지를 다루는 유일한 민간조직(a unique multi-energ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 설립목적은 에너지 및 에너지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연구, 분석, 토의하고, 에너지분야의 정책결정자들에게 WEC의 의견이나, 조언, 권고를 국제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WEC는 1924년 세계동력회의 (World Power Conference)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처음에는 전력산업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1968년에 명칭이 World Energy Conference로 변경되고, 다시 1990년에 World Energy Council로 바뀌었다.

① 본부조직

WEC는 모든 회원국이 집행이사회 (Executive Assembly)의 이사국이 되며, 1국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임기 3년의 집행이사회 의장(Chairman)이 WE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총재(President)가 있으나 이는 명예직으로서, 총회개최국이 지명한 인사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출된다.

또한 임기 3년의 집행이사회 부의장이 의장을 보좌하며, 런던의 중앙사무국(Central Office)은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 조직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WEC 중앙사무국은 금년도에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사무총장 휘하에 1명의 사무차장과 전문 매니저 등 총14명이 근무하고 있다.

② 각 회원국 국내위원회

WEC는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국의 에너지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국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위원회의 운영은 미국(미국에너지협회, USEA), 일본(일본동력협회), 한국(한국에너지협의회)처럼 민간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와, 중국과 같은 과거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마지막으로 자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체에서 직접 담당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③ WEC 재정

WEC의 재정은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年會費가 主收入源이며, 그외 특별기부금, 이자수입, 총회 개최국 기부금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년간 예산규모는 원화로 약15억원(1백15만파운드)으로서 우리나라는 95년도에 1,700만원(13,720파운드)을 부담하였으며, 회비분담 국가순으로 보면 상위에서 15번째로서, 인도, 노르웨이 등과 같은 수준이다.

참고로 북한은 95년도에 약900만원(7,000파운드)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부터 2년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환사정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회원국의 年會費는 UN통계자료를 이용하여 GNP, 年間에너지총소비량 및 총생산량등 3개 계수를 일정공식에 삽입하여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④ 주요 활동

WEC는 집행이사회 산하에 (1) 기획위원회(Programme Committee), (2) 연구위원회(Studies Committee), (3)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등 3개 상임위원회를 두어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 기획위원회는 총회 및 지역에너지포럼 개최와 WEC의 기본자료(reference publications)로 발간되는 에너지자원조사(Survey of Energy Resources), 국별에너지통계(National Energy Data), 화력발전성능(Performance of Thermal Generating Plant), 에너지용어사전(Energy Dictionary)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중 Survey of Energy Resources는 총회년도마다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데, 오늘 저희 협의회에서 원본을 인쇄하여 한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연구위원회는 총회 개최년도를 기점으로 그당시 가장 이슈가 되는 에너지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이를 총괄한 1992~95 3년간은 5개프로젝트의 13개 워킹그룹이 활동하였으며, 1995-98 3년간은 1) 수송부문 에너지, 2) 2050년 및 그 이후의 에너지전망, 3) 에너지자금조달, 4) 개도국에너지문제등 4개 프로젝트를 구성할 계획이다.

(3) 행정위원회는 WEC의 재정, 총회 및 집행이사회 개최지 심사등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⑤ 주요 WEC 국제회의

WEC는 총회, 집행이사회, 지역에너지포럼 등의 개최시 대부분의 경비를 주최국이 조달하고 있으며, 회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최국 및 WEC본부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하의 상임위원회 및 기술분과위원회 회의는 WEC본부와 해당위원회 위원들간의 상호협의에 따라 회의일정과 장소가 결정된다.

WEC는 근본적으로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총회, 집행이사회, 산하위원회등 각종 회의참가 경비는 참가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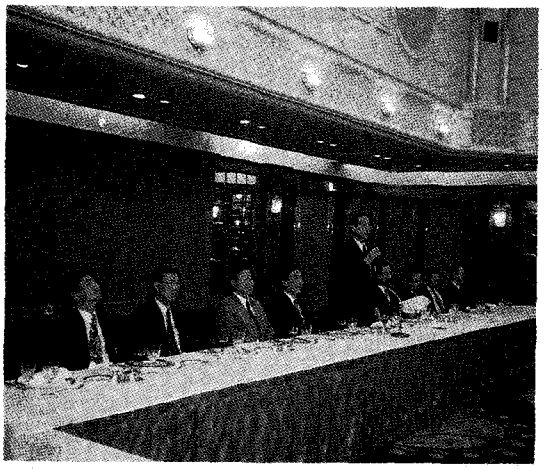
2. 제16차 WEC 동경총회 주요내용

가. 총회(Congress)

① 개요

동경총회는 10월 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약1주일간 계속되었으며, 총회와 병행하여 에너지전시회(World Energy Fair)와 청년·학생 에너지 심포지엄(Youth Energy Symposium)이 개최되었고, 총회직후인 14일부터 각국 신청자에 한해 9개 코스로 나뉘어 산업시찰(Post-Congress Tours)이 실시되었으며, 9개 코스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포철, 현대중공업, 고리원전 방문과 경주, 부산, 서울등 관광에 8개국 23명이 다녀갔다.

총회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84개 회원국과 IAEA, OPEC, IGU등 19개 국제기구 대표등 약 5,000명이 참가한 상당한 규모의 국제회의였으며, 한국에서는 전시회 준비요원, YES참가자 등을 포함하여 총52명이 참가하였고, 국별 참가규모는 주최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등이 수백명씩의 대표단을 참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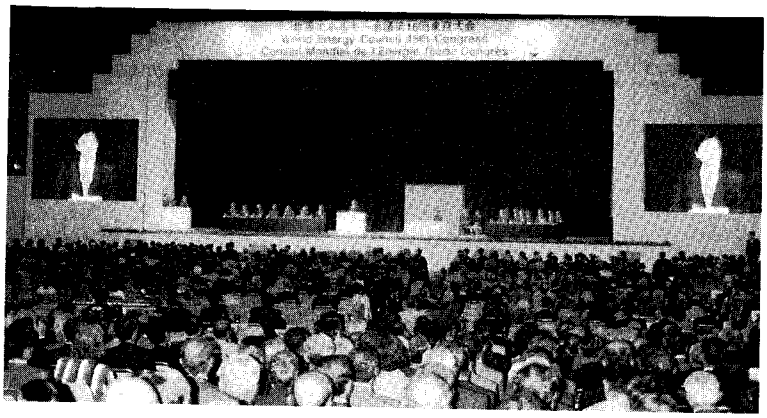


② 개회식(Opening Ceremony)

10월 8일 일요일 오후에 개최된 개회식에는 각국의 주요인사 및 대표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측에서는 Naruhito 왕세자부부, Murayama 총리, Hashimoto 통산성장관 등이 참석하여 WEC총회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심도를 가름하게 하였다.

Naruhito 왕세자는 개회선언을 하면서 "현대문명의 발달은 석유 및 기타 에너지의 대량이용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에너지의 이용에서 얻게되는 혜택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세계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에너지원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번 총회에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과 다음 세대를 위해 에너지 개발과 이용의 전략을 모색하는데 적극 힘써 주기바란다"는 메세지를 낭독하였다.

이어서 Gomez de Pablos WEC총재, Ott WEC집행이사회 의장, Murayama 총리, Hashimoto 통상장관이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일본측 연사들은 "일본은 2번의 오일쇼크를 통해, 민간·공공부문 모두다 에너지 코스트를 줄이고, 석유대체연료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이



러한 경험이 국제에너지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석유를 보면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 전망을 보면 에너지개발 및 이용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2010년 아시아 지역의 1차에너지수요는 92년의 2배가 될 것이며, 석유의존도는 현재의 50% 수준을 넘어 70%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일본은 APEC 체제 내에서 아·태지역의 에너지 수급문제를 연구할 국제기구 설치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③ 기조연설(Keynote Addresses)

총회 개막에 이어 10월 9일 월요일 오전,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회 본회의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되었는데, 기조연설은 총회 테마인 "에너지와 인류의 장래-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Energy for Our Common World-What will the future ask of us?)에 대하여 4개 서브테마로 요약되었으며,

즉 ① 에너지와 경제발전(Energy and Economic Development),
② 장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 (Future Sustainable Energy Supply),
③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More Efficient Use of Energy),
④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에너지 (Energy for a Better Environment)에 대해서 세계적 저명인사가 한사람씩 연설을 하였다.

Nasu 일본동경전력 이사장은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에너지'를 주제로 네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책적인 이유로 에너지를 저가로 유지한다면, 과소비로 환경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원분배를 왜곡시키게 되고, 환경보호에 투자할 자금회수도 어려움이 있어, 결국은 치유할수 없는 환경파괴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인간이 야기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기술이라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원자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의 광범위한 이용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끌어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논문발표(Papers S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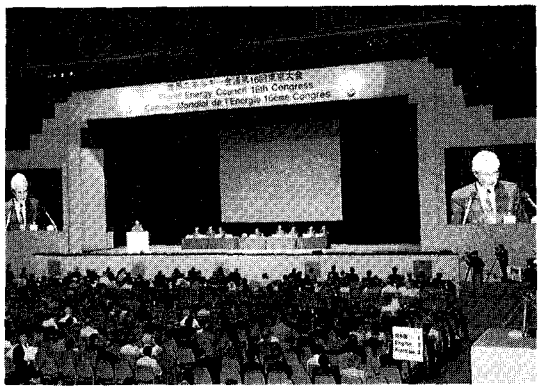
이번 총회에는 총 245편의 논문이 사전심사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 13개 세션에서 나뉘어 발표되었으며, 이중 7편의 초청 논문만 저자가 직접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나머지 논문은 각 세션별로 2사람의 보고자(Rapporteur)를 선정하여 이들이 7~8편의 논문을 차례대로 요약 발표하였다. 논문저자는 회의장 맨앞줄에 앉아서 해당 논문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의 부족으로 질의·답변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마련된 Author's Corner에서 토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13개 논문발표 세션이 끝난후 총괄세션(Review Session)에서 발표논문의 내용이 4개의 Division으로 나뉘어 요약 보고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Division 1 (에너지와 경제발전)에 분류된 84편의 논문에 나타난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자금조달이 가장 긴급한 문제이며, 에너지자체보다는 Restructuring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에너지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수송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 석탄의존의 심각성, 환경악화 등이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났고, 선진국과의 합작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Division 2 (장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분류된 73편의 논문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내용은 아직도 20억의 인구가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앞으로 대규모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기술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15년내에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자력이 전망이 밝지만,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간의 미래와 관련하여 이전 세대는 물랐던 '새롭고', 복잡하고, 긴박한 문제를 시장원리만으론 해결이 안된다는 결론이었다.



Division 3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분류된 32편 논문의 주내용은 다수의 논문이 에너지사용 방법의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정부가 도시 에너지계획 수립에 보다 큰 역할을 하여야 하고, 기업과 개인은 자연친화적인 생활형태(lifestyles)를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4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에너지)에 분류된 56편 논문의 주내용은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에너지 공급자가 인구증가를 따라 잡을 수는 없으므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형태를 개선하고,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국가간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⑤ 패널토론(Round Table)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해당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를 패널리스트로 초청 자유토론을 실시했는데,

1) 정부 규제와 시장 경쟁력의 조화,

2) 아·태지역의 에너지개발-과제와 전망,

3) 생활과 에너지－이상과 현실,
4) 에너지개발과 금융－성공과 실패 사례
5) 교통문제와 환경－기술로 어느정도 해결가능한가?
6) 에너지와 환경－2100년으로부터 회상 등 6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여건과 관련 관심을 모은 Round Table 세션 5 '교통문제와 환경－기술로 어느정도 해결가능한가?'(Transport and the Environment－Can Technology Provide the Answers?)라는 주요 토론 내용중 일부를 소개하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욕구가 끝이 없는한, 기술만으론 수송관련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 CO2 배출량의 22%를 수송부문이 차지하며, 이중 80% 이상이 육상교통이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효율개선이 79년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활발했으나, 그 이후 둔화되거나 역전되었는데,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값싼 기술의 활용과 85－86년의 유가하락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효율개선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없어졌기 때문이며,
－가솔린과 디젤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천연가스가 대체연료로 가장 부각되고 있고, 전기자동차는 도시용으로서 보완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재택근무 도입이 주장되었으나, 여가활용 목적으로 여행량이 증가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자동차소유에 대한 강한욕구로 환경문제가 인간의 직접적인 건강문제로 까지 심각해지지 않는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게 주내용이었다.

⑥ WEC 조사보고(Working Group Sessions)

WEC의 각종 산하위원회가 1992－95년간 연구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누어 총 8개 세션에서 발표되고 토론을 하였다.

⑦ 초대강연(Global Energy Addresses)

'21세기의 에너지시스템'(Managing Energy Systems for the 21st Century)과 '전환기 세계의 에너지 지정학'(The Geopolitics of Energy in a World in Transition)등 2개의 주제에 대해 각각 3명씩의 세계적 저명인사가 초청되어 각기 다른 시각에서의 강연을 하였다.

⑧ 특별강연(Special Congress Addresses)

Bolin IPCC위원장이 '기후변동에 관한 논의와 전망'(Possible Climate Change)에 관해서, Kobayashi 일본 관서전력 회장이 '전력사업 경영과 종합품질관리'(Total Energy Industry Quality Control)를 주제로 오찬연설을 하였다.

⑨ WEC신간 소개(New WEC Publications)

에너지자원조사 등 95년도에 WEC가 새로이 발간한 17개 간행물을 소개하는 세션이 있었으며, 일부는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 구입 · 발간하여 회

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에너지협의회 보등에 자료명이나 가격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나. 집행이사회(Executive Assembly)

총회개최 직전 10월 6일 개최된 WEC집행이사회에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약 270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문희성 한전 이사장과 저를 비롯하여 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독일의 Dr. G. Ott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영국의 Mr. J. W. Baker 신임의장이 취임하였으며, 신임총재에는 동경총회 조직위원장 Mr. T. Ikuta(일본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12명이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되었으며,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카메룬, 케냐 등 4개국이 신규로 가입하여 회원국수는 총101개국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 제18차 총회부터는 총회등록비 수입의 15%를 WEC중앙사무국에 기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이태리 3개국이 2001년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개최지 결정은 내년도 터키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97년도 집행이사회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다. 또한 10월 5일 오후에는 회원국 사무국장회의가 열려 사무국장회의 정례화등 건의사항 발표와 WEC본부 신규채용 매니저들의 인사와 담당업무 소개도 있었다.

1998년도 제17차 총회는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미 3년전에 결정되어 준비하고 있는데, 총회 테마를 "Energy and Technology : Sustaining World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nium"으로 정하고 사상 최대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다. 일본 에너지 세미나 (Japan Energy Seminar)

10월 13일 총회 최종일 오전에 3시간동안 일본 에너지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는 동경총회 조직위원회가 총회 참가자들에게 개최국 일본의 에너지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자국의 장기에너지전략에 대해 외국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국민들에게 에너지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준비된 것으로 보였다.

세미나 프로그램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前 IEA 사무총장

Steeg 여사가 "일본이 선택할 장기에너지전략" (The optimal long-term energy strategy for Japan)이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전기, 석유, 가스, 석탄, 發電技術 등 5개분야에 대해서 일본 중부전력 Abe 회장등 5명의 대표가 해당분야의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두번째 세션은 "Energy Ministers' Forum"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초 일본 통산성장관이 기조발표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정상 자원에너지청장이 대신하였으며, 패널리스트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페인의 에너지 장관과 미국의 Black & Veatch사 회장이 발표에 참가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 장관들은 패널리스트로 나서 자국의 에너지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자국의 에너지산업에 선진기술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발언을 하였다.(구체적 발표내용은 '일본 에너지 세미나'편참조).

3. 한국측 주요 활동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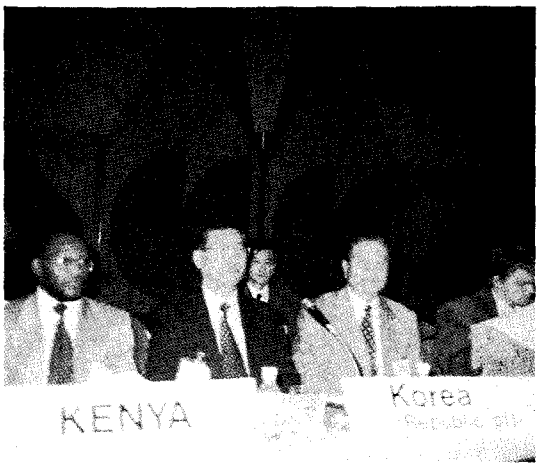
① 기조연설

기조연설중 '에너지와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첫번째 연사로 나선 김철수 前상공자원부 장관께서 '환경보호 문제는 다음 세기의 에너지경로(energy path)나 경제개발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이므로, 에너지절약의 강화, 효율향상, 탄소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긴요하고, 개도국의 비효율적 에너지이용, 활용기술부족, 자금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 시장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상이한 책임부담을 원칙으로 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환경 협력은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강연내용은 '에너지와 경제발전'편 참조).

김철수 전장관의 연설내용이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총회기간중 여러사람으로부터 전해들었다.

② 패널토론

-Round Table 2의 주제는 '아태지역의 에너지 개발-과제와 전망'(Asia/Pacific Energy Development-Priorities and Perspectives)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회성 에너지경제연구원 고문이 패널리스트로 초청되어 한국의 석유수급, 전력사업,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그는 발표에서 한국은 석유의존도가 높아 석유소비량은 세계 제8위, 석유수입량은 세계 제6위이다. 2000년에는 세계 제4위의 석유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전력산업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국영체제로서 시설용량이 30GW를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5~6년내에 2GW의 민자발전이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력사업법은 잠재력이 큰 산업열병합발전(Industrial Cogeneration)과 피크부하시 현장 DSM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것이 개선될 경우 발전소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전력회사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회성 고문은 참가자들로부터 특히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많은 질의를 받고, 진지한 답변을 하였으며, 시간이 끝난후에도 질문을 하는 외국인이 많이 목격되었다.

-Round Table 4 "에너지개발과 금융-성공과 실패사례"(Financing Energy Development -Winners and Losers?)에 이봉서 前동력자원부 장관이 패널리스트로 초청을 받았으나 사정상 불참하였으며, 박재윤 장관도 일본에너지세미나의 Energy Ministers' Forum에 역시 패널리스트로 초청을 받았지만, 국회등 국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 세션에서 중국측 패널리스트 Jia(석탄산업부)씨는 중국은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대체연료의 이용이 용이하지 못해, 석탄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계속될 것이며, 94년도 총에너지소비중 석탄이 74%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세션에서 아태지역은 타지역과 비교하여 독특한 에너지 소비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심해 일반화하기 어렵고, 세계전체적으로 부문별 에너지소비는 석유40%, 석탄27%, 가스가 23%를 차지하는데, 아시아지역은 그 비중이 각기 39%, 45%, 9%로서 석유는 세계평균과 비슷하나, 석탄은 월등히 높고, 가스의 비중이 아주 낮은게 특징이라고 보고되었다.

③ 논문발표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산성우 문제(한전 전력연구원 홍욱희 박사)

-계절 시간대별 차등요금의 효율성(한전 전력경제처 김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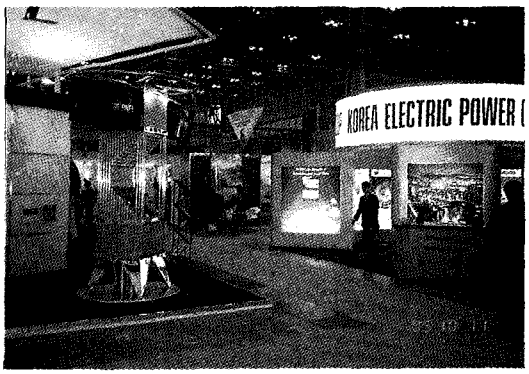
-생산적 에너지소비와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박사)

-개방경제하의 환경규제 영향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정태용 박사)

-바이오매스 이용기술개발 현황(에너지기술연구소 박순철 박사) 등 5편의 논문이 채택되어 발표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한국측 논문제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발표논문의 요약은 본보 제35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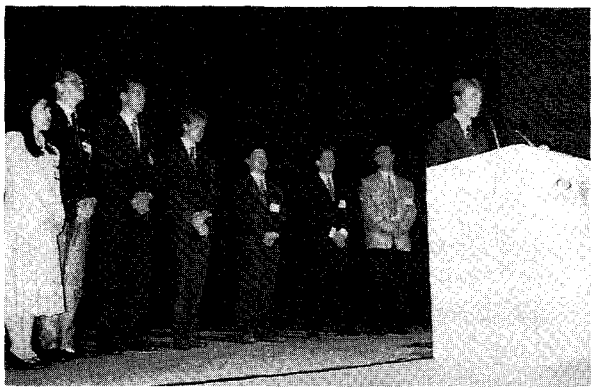
④ 에너지 전시회

에너지 전시회에는 18개국 174개사가 참여하고 약 62,000명이 관람하였는데, 한국에서는 한전, 한중, 한국전력기술, 원전연료등 4개사가 'Korea



⑤ 청년·학생 에너지 심포지엄

청년·학생에너지 심포지엄(Youth Energy Symposium)은 동경총회에서 최초로 추진한 프로그램으로서 18~28세의 청년, 학생들에게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계획되었으며, 39개국에서 123명이 참가하여, 총회장 인근의 일본 해외직업훈련센타에서 8개 그룹으로 나누어 강연청취, 논문발표 및 토론을 하고,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 총괄세션(Review Session)에서 발표함으로써 총회의 결론 및 권고사항에 이들의 주장도 반영되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과기원, 아주대의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각1명씩이 참가하여 좋은 경험을 하였으리라 생각한다. YES참가경비는 왕복항공료를 해당 국내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총회등록비, 숙식비등 현지 체재비용은 동경총회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였다.(구체적인 발표내용은 'YES 참가보고'편 참조).

4. 동경총회 결론 및 권고 (Tokyo Stat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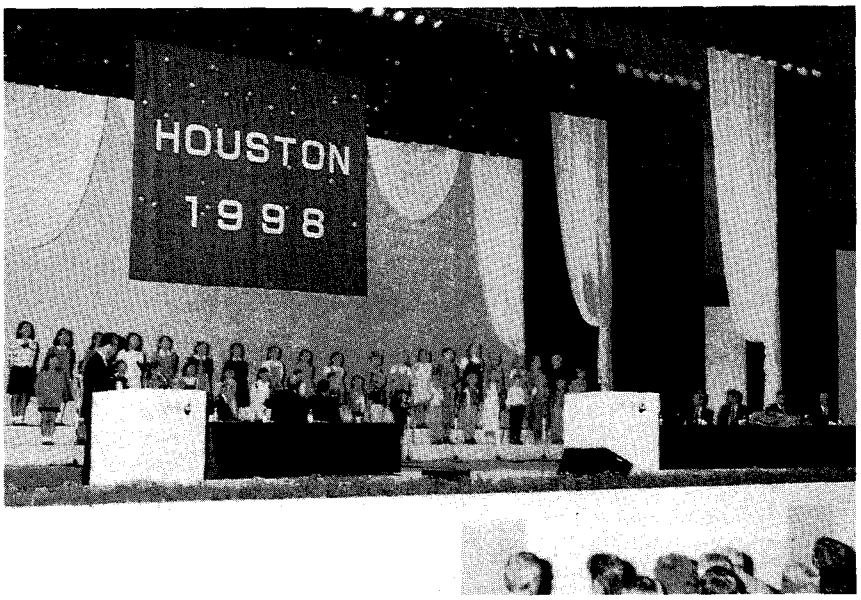
10월 13일 오전에 일본 에너지 세미나가 끝나고, 오후에는 이번 총회의 폐회식이 열려 동경총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담은 Tokyo Statement가 채택되었으며, 동경총회의 준비부터 최종일까지의 전과정을 엮은 멀티비전 상영과 다음총회 개최국인 미국의 휴스턴 총회조직위원회가 준비한 영상공연 등의 행사가 있었다.(동경선언 내용은 '총회 결론 및 권고'편 참조).

5. 맺는 말

지금까지 WEC 동경총회 기간중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이번 동경총회를 통해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많이 입

수되었다('동경총회 수집자료'편 참조).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에너지협의회로 연락을 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회원사로 국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총회등 WEC의 각종행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 한전 등 일부 회원사를 제외하고는 WEC 활동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특히 중공업 등 에너지 기자재 메이커나 엔지니어링 업계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회의 회의내용 뿐만 아니라 각국 참가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정보수집으로 기업홍보를 함으로써 다방면에서 실리를 얻는 기회의 장소로 십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저희 사무국에서도 국내 인사들이 WEC 등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WEC 활동과 관련하여 정근모 과기처 장관께서 1985-88 3년간 집행이사회 부의장으로 활동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는 名譽副議長으로 추대되었다. 남정일 前한전 기술연구원장과 이회성 에너지경제연구원 고문께서 상임위원회 멤버로 활동해왔으나, 현재는 상임위원회에 한국측 위원이 全無한 상태이다. 그래서 96년에는 한국측 인사가 1명이라도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산하 기술분과위원회에는 지난 3년간 약10명의 한국측 인사가 참여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다음 총회는 98년 9월 미국 휴스턴에서 "Energy and Technology: Sustaining World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nium"을 주제로 개최토록 되어 있다. 많은 참가를 바라며, 저희들의 희망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10년후쯤이면 WEC총회 개최가 이루어져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서없이 총회참가 보고를 드렸으나, 이어서 에너지관리공단 이기성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회성 고문, 에너지협의회 기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우현범 대림엔지니어링 사장의 훌륭한 강연이 계속될 예정이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